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6호 [루게 제2776호]

주제 112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음력 9월 28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푸른 숲이 전하는 송고한 애국의 세계

지금 공화국에서는 가을철 나무심기가 한창이다.

나라의 산물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킬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온 나라가 떨쳐나 날마다 나무심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다. 산림이 울창해야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고 큰물과 산사태, 가뭄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나라의 토지도 보호할 수 있다.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공화국에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은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아름다운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송고한 애국념원이 어려있는 조국강산을 뜨겁게 품어

안고서 열과 정을 다해가 꾸어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몸소 산림복구사업을 진두지휘하시며 이 땅을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펼쳐주시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었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던 어느 해 3월 2일 몸소 삼을 드시고 일군들에게 나무를 심는 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푸른 숲에 비친 위대한 수령님의 락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전해주시며 이제 머지않아 우리 나라의 산과 들은 특색이 우거져 설렘이 넘치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3(2014)년 11월에도 중앙양표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하는데 나서시는 강령적과업들을 밝혀주시고 산림복구전투의

포성을 울려주시었다.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 것처럼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산림조성사업은 장기성을 띠는 사업인것만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깊이 새기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전방성있게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우리앞에 나선 송고한 의무이고 조국의 미래,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전군총적운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조국산천을 푸르게 하라고 다시금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그 호소를 되새겨보느라면 누구나의 눈앞에 뜨겁게 어려온다.

주체101(2012)년의 식수절 어느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어 절세위인들의 애국현신의 세계를 뜨겁게 돌이켜보시며 몸소 마른해가지고오신 나무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현 지 교시 관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 지지도표식비가 자리잡고있는 곳에 정성껏 심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영상이.

그날 미리 파놓은 구멍이들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멍이를 먼저 파놓고 나무심기를 하는것은 형식주의라고 일깨워주시며 나무심기는 자기가 구멍이를 직접 파고 심어야 나무심기가 되고 말할 수 있다고, 나무심기는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

하기 위한 김정애국주의의 발현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어제 그뿐이라. 저 멀리 외진 섬초소에 가보면 한해에도 두차례나 찾으시어 섬방어대에 나무들이 많은것이 마음에 든다고, 앞으로 나무심기를 더 잘하여 섬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령장의 호소가 들려온다.

아이들의 행복의 노래소리 몇해전 가을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원에 있는 시험포전에 새 품종의 잔디를 손수 심으시며 일군들에게 새 품종의 잔디의 특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기 쉽게 알려주시고나서 새 품종의 잔디를 다 심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 맞는 좋은 품종의 잔디를 골라 온 나라에 퍼뜨려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은 김정애국주의를 따라배우자고 말한 할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도시와 구역, 자기가 일하는 단위에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 가꾸어 생명이 더디고 푸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온 나라의 산과 들을 푸르게 하려는것은 자신의 구상이고 결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토록 열렬하고 뜨거운 정을 기울이시며 이 땅에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국강산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빛내이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었다.

자래우는데 많은 품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국의 산과 들에 따따 열정을 바치며 여기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라고 하시며 일군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심원한 세계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이 땅에 뿌리내려 조국의 대지를 더욱 푸르게 하는 잔디에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몇해전 가을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원에 있는 시험포전에 새 품종의 잔디를 손수 심으시며 일군들에게 새 품종의 잔디의 특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기 쉽게 알려주시고나서 새 품종의 잔디를 다 심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 맞는 좋은 품종의 잔디를 골라 온 나라에 퍼뜨려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은 김정애국주의를 따라배우자고 말한 할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도시와 구역, 자기가 일하는 단위에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 가꾸어 생명이 더디고 푸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온 나라의 산과 들을 푸르게 하려는것은 자신의 구상이고 결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토록 열렬하고 뜨거운 정을 기울이시며 이 땅에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국강산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빛내이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었다.

경애하는 그의 위대한 애국의 뜻에 떠받들려 푸른 숲 더욱 우거질 이 땅의 래일은 또 얼마나 환희로울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유정한 시어와도 같이 그리도 자주 외워보시던 《푸른 산, 푸른 들》이라는 부름이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이 땅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것이다.

푸른 산, 푸른 들은 그대로 산에는 산마다 황금산, 보물산의 노래소리 울리고 들에는 들마다 오곡백과가 물결치며 특색이 짙은 일터에 청신한 향기가 넘쳐흐르는 지상락원, 사회주의무릉도원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지난해 3월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력사적인 기념식수를 하시는데 자리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참 뜻을 깊이 새겨주시었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따라 공화국인민들은 한 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조국강산에 자신들의 깨끗하고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수놓아가고있다.

54살의 걸지 않은 생애 전 국가지에 1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은 평범한 인민군관, 산림감독원의 모표에는 조선

지도가 있다고 하면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깨끗한 랑심을 바쳐가는 석교리의 산림감독원, 20여명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기업소가 자재의 힘으로 주변에 6만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과일나무를 심어가꾸어 《공원속의 사업소》로 온 나라에 소문난 개천시의 어느한 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하여 애국으로 심장의 더운 피를 끓이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산림복구사업에 떨쳐나서고있다.

이 땅에 푸르러 설레이는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들은 단순히 나무이기 전에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애국의 뜻을 받들어 터럭이 맑고 대하마냥 용용한 이 나라 인민의 애국의 마음들이 씨앗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생명수가 되어 싹고 자래운것이기 에 더없이 소중한 나라의 재부로 되고있는것이다.

오늘도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조국애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조국강산을 푸른 산, 푸른 들이 선경을 이룬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일떠세우려는 인민들의 열화같은 애국의 마음들이 떠받들려 공화국의 산천은 날을 따라 더욱 푸르러가고있다.

나날이 푸르러가는 공화국의 산림들은 년년이 울려갈 자기의 설레이소리와 함께 이 땅의 사람들이 세세년년 이어가야 할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조국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 땅은 영원히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혜제일락원으로 빛을 뿌리리라고.

본사기자 손지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었다.

상무회의에는 미사일공업철을 제정함에 관한 문제, 교육위원회를 교육성으로 할데 대한 문제와 간석지법, 하천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되었다.

미사일공업철의 제정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밑에 세계적인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주체111(2022)년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려정에서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려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며 우리 국가의 무적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상무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를 교육성으로 할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고 고등교육성과 주체99(2010)년 6월 23일에 채택된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915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로 개편함에 대하여》의 효력을 없애기로 결정하였다.

간석지법에서는 간석지건설과 관리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수정보충되었으며 하천을 적극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하천법에 새롭게 규제되었다.

상무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공업철을 제정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으로 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등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소식

사리원기초식품공장 준공식 진행

황해북도에서 사리원기초식품공장 개건현대화공사를 완공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여러가지 맛좋은 기초식품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리원기초식품공장 준공식이 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문창일 황해북도당위원회비서, 관계부서, 공장 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 사리원시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건설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었으며 그 경험을 전국의 시, 군들보다 확충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인민생활과 직결된 사리원기초식품공장을 개건현대화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히 해나갔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생산건설, 사무청사를 비롯한 10여개 호동의 건물공사를 질적으로 내밀었으며 공정설계를 혁신하고 자재의 힘과 기술로 설비제작과 조립을 립체적으

로 추진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공과정, 효소분해공정, 포장공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초식품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그쁘히 갖추어지고 구내에 수리화, 원림화가 실현됨으로써 공장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받들고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찾는 새 제품들을 적극 개발하며 기초식품생산에 실질적으로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경성소년단야영소 준공식 진행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의 송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경성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일떠섬었다.

야영과 회관, 식당, 전자도서관, 야외수영장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야영생활에 편리한 모든것이 그쁘히 갖추어진 또 하나의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가 꾸러짐으로써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9일에 진행된 야영소준공식에는 황해북도당위원회비서들과 관계부서 일군들, 건설자들, 야영소 교직원들, 경성군안의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박명호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각 도들에 소년단야영소들을 잘 꾸리는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야영소의 설계형상안 몸소 지도해주시고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뜻을 받들

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종전의 건물들을 통채로 들어내고 야영소를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도안의 녀맹들도 공사를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야영소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건물들과 설비, 비품들을 잘 관리하여 어머니당의 사랑이 야영생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야영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세상에 둘도 없는 원아들의 공전

예로부터 설움중의 제일 큰 설움은 고아들의 설움이라고 하였다. 고아들의 설움, 그것은 부모없는 설움, 따뜻한 친아버지, 살뜰한 친어머니의 정에 대한 그리움의 분출이다. 나에게도 아버지, 엄마가 있었으면 하는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고아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고 소원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는 있을수 있어도 고아의 설움을 안고사는 어린이는 단 한명도 없다.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주제103(2014)년 10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일떠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있다.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의 외형도 멋있지만 유희실과 잠방, 세면장, 식당, 놀이장, 운동실, 물놀이장, 자연관찰실, 치료병동 등 모든것이 최상의 수준으로 꾸려져있다.

그리고 천정과 벽체들이 온통 달과 별, 꽃과 동화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어 저절로 동심에 잠기게 하는 말그대로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 세상에 다시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다.

여기서 원아들은 한점의 그늘도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훌륭한 조건과 환경에서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이 자라는 조선의 원아들, 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온 나라 아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어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대해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곤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제103(2014)년 2월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당시)을 찾으시어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들이라고,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들을 혁명가유자녀들을 키우는 혁명학원 수준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 세상에 둘도 없는 궁전이 불과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

건설중에 있는 육아원과 애육원건설장을 찾기도 또 찾으시어 외부와 내부는 물론

교육조건과 생활환경에 이르기까지 손색이 없이 꾸리도록 방향과 방향을 밝혀주시면서 앞으로 각 도들에게도 평양육아원과 애육원과 같은 보육 및 교양시설을 꾸려주어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무럭무럭 크도록 하게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완공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그날에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이처럼 훌륭한 보육자리는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몇평이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의해 평양시뿐 아니라 이 땅 곳곳에도 육아원과 애육원들이 훌륭하게 일떠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후대사랑은 주제104(2015)년의 새해 첫아침에도 어려웠다.

이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과 양력설을 함께 쇠려고 신년사를 한 다음 제일먼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 왔다고, 신년사를 하면서 온 나라의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해주고보니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이 더욱 보고싶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또한 애육원에서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면서는 일군들에게 경양유치원보다 나은것 같다고, 잘한다고 치하해주기도 하시었다.

공연마감에 원아들모두가 우리들이 정을 그리워한다고 명절날에도 찾아오시고 추운 겨울날에도 오시어 사랑을 안겨주시는 원수님, 사랑같은 애육원을 지어주시고 세상에 부럼없이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이시라고 목청껏 웨칠 때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이였다.

이처럼 조국과 민족의 미래인 아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이이시기에 수천에 몸소 원아들에게 먹일 물고기수령까지 계산해보시며 원아들에게 공급할 물고기수령도 정해주시고 그 보장을 위한 수산사업소까지 일떠 세워주시었다. 그리고 원아들에게 영양가 높은 곶감을 정상적으로 먹이도록 하시어 인민군부대들에 곶감을 마련하여 보강할데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까지 하달 하시였고 전선시찰의 길에서 어드린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들을 대성산종합병원에서 보양식킬데 대한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고 원아들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소 병원을 찾으시어 그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칠따라 고운 옷도 입혀주시고 맛있는 당과류며 과일, 꿀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들도 거둬들여 안겨주시며

원아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쫓고 열을 다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땅에서는 원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하늘가에 메아리치고있다.

얼마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명천알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어드린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이 길이가 2m가량이나 되고 무게가 100kg이 실리 되는 희귀한 가재미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을 청진 애육원 원아들에게 보내주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원아들을 비롯한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세상에 부러울것이 아니라,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진정 볼바다 뜨거운 열과 정으로 조국의 미래를 가꾸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 조선의 어린이들의 얼굴마다에는 언제나 행복의 웃음이 비껴있고 이 땅의 래일은 더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최현철



인민을 위해 걸으시는 혁명길

후대들을 위해 생농길도 헤치시며

동해기슭에 세상에 더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아난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자애가 뜨겁게 새겨져있다.

주제103(2014)년 2월 23일은 일요일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눈덮인 멀고 험한 길을 달리시어 새로 개건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었다.

야영각과 국제친선소년회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수족관, 조류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세상에 이런 야영소가 없을것이라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사업은 올해 건설에서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시는것이지만 우리가 일떠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을 백년, 천년을 내다보며 건설해야 한다고,

힘이 들어도 질적으로 잘 건설해야 후대들에게 땀이 넘겨줄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시신 조치에 따라 야영소개건공사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두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였다.

주제103(2014)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또다시 찾아주시었다.

이때로 말하면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다시금 최악의 지경으로 번져가고있던 시기였다.

바로 그러한 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야영소를 또다시 찾아주시실 줄 그 누가 상상할수 있었으랴. 걱정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최전선으로 나가던 길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 그 정형을 알아보고 들렀다고, 자신께서는 저쪽과 첨예한 대결전을 벌리면서도 언

제나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래일을 그려보곤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대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의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볼썽 뜨거울것이 솟아올랐다. 어린이들에게 세대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심정이 얼마나 불같았으면 최전선으로 나가시던 길에 여기 야영소를 먼저 찾아주셨으랴.

진정 경애하는 그이의 그 불같은 후대사랑에 의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드디어 준공의 날을 눈앞에 두게 된것 아닌가.

이날 야영소의 여러곳을 잠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의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규모에 있어서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을뿐만 아니라 요소요소가 우리의 얼굴이 살아나고 주제적진취미학사상

의 요구대로 선전리성, 선미학성이 보장되었으며 당의 후대관이 비낀 몇평이건축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예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 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면서 마무리를 할때도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라고 하시었다.

오늘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울려나오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위대한 후대사랑의 송가, 영원한 행복의 찬가로 높이높이 울려 퍼지며 온 나라, 온 세상 아이들을 저서 오라 부르르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영원한 사랑의 젓줄기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과연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것인가.

그것은 후대들을 억만금의 재부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여기시고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열결같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주제104(2015)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식 현대화의 본보기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지난 한해동안 영양학적, 위생학적요구를 만족시키는 여러가지 새

제품을 개발하였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에 맞으면서도 구매자들의 편리를 도모할수 있게 상품도와 포장에서도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식료품의 맛을 가지고 세계와 경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헤쳐며 혁명을 하는것도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이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오늘은 비록 힘들어도 밝고 창창한 래일을 락관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정성화이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그전해 12월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어 공장의 생산정성화문제는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환경생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는데 노력의 의무를 관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후대들에 대한 이런 불같은 사랑을 지닌분이기때문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든든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요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언제인가는 몸소 시험 생산한 젓가루를 맛보시고 이른 새벽 해당 부문의 책임일군을 거듭 전화로 찾으시어 젓가루의 부조절을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었고 또 언제인가는 아이들의 입은 속이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고 통속적이고도 해학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2021년 6월에는 새로운 육아정책이 수립되고 그 다음해인 2022년 2월에는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을 중요한 공산주의적지책으로 규제하고있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육아법도 채택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희한한 보육자리들도 가는 곳마다 일떠설수 있었으며 온 나라 아이들에게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습품, 품고 삼뚝한 교복이 안겨지는 자랑찬 현실도 펼쳐질수 있었다.

조건이 좋고 모든것이 풍족한 때에 받아안은것이라면 사람들의 가슴 이다지도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것이다.

류레없는 쿠난과 도전을 뚫고 헤치는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거둬들여 차려지는 사랑이기에 천만 인민은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정령 가장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시고 이 땅위에 위대한 후대사랑의 년륜을 아로새기시는 절세유인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양양하며 이 땅, 이 하늘에는 아이들이, 아니 천만민민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영원히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박경원



이 나라의 어머니들을 자랑한다

무릇 어머니의 행복은 자식들이 잘되는 모습을 볼 때라고 한다.

열두자락 치마폭에 온갖 시름 안고있어도 자식이 훌륭하게 자란다면 모든 고생을 락으로, 행복으로 여기는것이 어머니들의 공통된 심정인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 어머니들의 행복은 이런 단순한 모성에의 감정을 초월한다.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서방의 여성문제전문가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모성에, 그것은 천부적이라 할가 여하튼 어느 사람도 따를 수 없는 순결함과 확고부동함, 헌신성과 무조건성을 지니고있다고 나는 생각하곤 했다.

마치 절물변의 섭리처럼 느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이 모성이며 서로 다른 세상, 서로 다른 세대에 살아도 여성은 똑같은 모양의 모성을 락 지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선의 여성들을 통하여 알게 된 모성에는 류다른것이였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모성에는 자식들이 조국을 알고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을 위해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게 하는 사

상감정으로 승화되고있다.

자기 자식들이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바치였을 때 이 나라 어머니들은 제일 행복해하는것이이다.》

그도 말했듯이 이 나라 어머니들이 제일 행복해할 때는 자식들이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출어는 그런 애국자가 되었을 때이다.

조국을 위해,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를 강그러 바쳐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행복의 웃음, 기쁨의 눈물짓는것이 다름아닌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다.

아들딸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세우는 길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식들을 세우는데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데서 인생의 크나큰 행복과 긍지를 찾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

이렇듯 훌륭한 어머니들을 이 땅이 아닌 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온 말이 있다.

오늘 공화국에서 삶의 새 주소를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정하고 주저없이 탄원하여 영웅형 청년의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는 수많은 청년들,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역에서 위훈을 떨쳐가는 미덥고 끝없는 청년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자라날수 있는것은 이 땅의 어머니들 자신이 진정한 애국자들이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소개된 애국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심심산골의 자기만의 분교의 교원이 된 청년교원의 어머니도 처녀시절부터 한생을 산골마을 분교의 교단에 서있을 애국자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로관리공으로 탄원한 청년의 어머니도, 군사복무를 마치고 위생시설수리공이 된 청년의 어머니도, 대학을 졸업하고 산림감독원이 된 청년의 어머니도 수십년세월을 도로관리공으로, 위생시설수리공으로, 산림감독원으로 한생 조국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이었다.

하다면 그 무엇이 이 나라의 어머니들을 그렇듯 숭고한 애국심의 체현자들로 만들수 있었는것인가.

언제인가 어느한 산골마을의 한 애기어머니는 평범한 땅부의 자식들을 위해 하루도 변질없이 찾아오는 젓제품반찬차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처음 젓제품반찬차가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 고마움의 눈물, 행복의 눈물을 많이 흘린것은 다름아닌 우리 어머니들이였습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아이들에게 안겨줄 《해바라기》 학습용이며 교복, 《소나무》 책가방을 실은 자동차가 달려오고 오늘은 이렇게 젓제품을 실은 차가 찾아오고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적소리만 울리면 로동자구사사무소마당에 달려나와 젓제품을 실은 차를 마중하고 바래우는것이 마을사람들속에서 하나의 생활로 되고있습니다. 산골에도 변함없이 찾아오는 젓제품 운반차의 경적소리를 듣고 우리 마을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찾아오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정말이지 자식들을 낳아 갈수록 커만 가는 나라의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는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이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해 해빛밝은 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세워주고 영원한 국책으로 젓제품도 보장해주며 돌보아주는 나라, 친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컬따라 새 교복을 안겨주고 학습용품도 가슴 한가득 안겨주는 나라, 부모들도 미처 알지 못하는 자식들의 자기만의 재능의 싹도 찾아내어 정성껏 자레우고 꽃피워주는 이렇듯 고마운 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애착은 이 나라의 어머니들을 높은 애국심을 지닌 인간으로 승화시킨것이다.

그렇다.

조국이 없으면 자기자신은 물론 자식의 운명도 미래도 없기에 자식들의 거울이 되어 애국의 한길을 앞장에서 걸어가고있는것이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고 자식이 당과 제도의 고마움을 잊고 잠시라도 주저앉을 때, 조국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한 길에서 제일 앞서가 아니라 두번째, 세번째 자리로 물러설 때 부드럽던 그 손에 주저없이 채찍을 드는것도 바로 이 땅에 사는 어머니들이다.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한 길에 자식들을 떼트기 위해 애쓰고 그 길에서 행복을 찾는 수많은 이 나라의 어머니들.

진정 이런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기애 공화국의 미래는 더욱 밝고 아름다워지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연선

너성들을 가정의 꽃, 생활의 꽃, 나라의 꽃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공화국에서는 너성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혜택들이 배풀어지고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너성들을 적극 우대하고 그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놓고서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당시 신문과 방송, TV로는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있는 너성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령영웅칭호,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이 발표되었으며 뜻깊은 태양절을 맞아도 성대한 국가표창 수여식도 진행되였다.

평범한 너성들의 애국의 마음과 뜨거운 모성을 높이 평가하여 나라에서 안겨준 영웅의 금메달을 비롯한 훈장과 메달들.

이들의 소행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특출한 위훈과 대비할수 없는 너무나 평범한것이였다. 그러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이 나라의 너성들이기에 이렇듯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자식을 많이 낳아키우는 것은 너성의 옹당한 본분입니다. 또 나라에서는 다산모라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배풀어줍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애국자로, 영웅으로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니 정말 우리 나라가 제일이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사회주의제도의 혜택들이 어찌 이뿐만이랴.

공화국에서는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세명이상의 자식을 낳아키우는 너성들에게 다산모치료를 받도록 하고있다.

다산모치료에는 세명이상의 자식을 낳은 다산모는 물론이고 그의 남편과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기 전 나이의 자식들의 이름까지

도 함께 올라있다.

다산모치료권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중앙금병원을 비롯한 각종 치료에방기관들에서 의료사수를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해당 단위들은 다산모치료권을 소유했던 대상들에게 온갖 치료조건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다산모들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기 위한 시책들이 중단없이 실시되여왔다.

공화국에서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워 내세우는 다자녀세대들에 대한 국가의 혜택도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있다.

나라에서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키우는 세대들을 빠짐없이 자체적으로 장악하여 다자녀세대중도 발급해주고있고 그들의 자녀들을 직업기술학교에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너성들은 마지막자식이 고급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가 새봄처럼 정한 특별보조금도 보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너성들이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할수 있도록 정력적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너성군로 자들에게는 야간작업을 시키지않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정기휴가외에 산전산후휴가가 더 차례지고 세명이상의 어린이가 있는 너성들은 하루에 6시간 일하면서도 남자와 똑같은 정액생활비를 받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다산모들이 받아안은 고마운 혜택.

진정 이 말속에는 너성중시, 너성존중, 너성사랑의 화원에서 사는 이 나라 너성들의 행복상이 그대로 비쳐있다고 할수 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너성들 누구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빛내여주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조선너성들은 모두가 복받은 너성들이라고.

본사기자 김진혁

다산모들이 받아안고 국가적 혜택



공화국의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운데는 이런 노래가 있다.

... 산골이 마을에 가도 사람들 누구나 형제 강건너 마을에 가도 모두가 친근한 형제 산이 좋고 물이 맑아서 사람마다 길이 깊은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나라 사회주의 내 나라 사랑이 넘쳐서라오 ...

예술영화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들》의 주제가이다. 이 영화가 나온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영화와 노래가 다같이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결코 영화의 즐거이가 재미있게 여겨지고 배우들이 역형상을 잘해서만이 아니다. 영화속의 이야기이자 공화국의 현실이기때문이다.

노래에도 뜻이 누구나 친형제가 되어 서로 돕고 위해주는 미덕과 미풍이 국풍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이다.

얼마전에 알려진 사실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전신 화상을 당한 한 모동자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고 온갖 정성을 기울인 사람들, 그들은 환자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들이였다.

그들뿐인가.

뜻하지 않게 걸지 못하게 된 한 처녀를 위해 친형육의 정을 기울인 부부, 영예군인

사랑이 넘치는 나라

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 마침내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해준 친척, 수심년세월 로병의 한 자식이 되어 그의 생활을 따 뜻이 들봐주고있는 어느 구역의 너성들과 부모없는 소녀의 어머니가 되어준 처녀...

어떻게 그렇듯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할수 있었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에 위대한 없습다.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원에 면회왔다가 걸지 못하는 한 처녀를 보게 되였습니다. 마음껏 걷고싶다는 처녀가 꼭 내 동생같이 그냥 두고 갈수 없었습니다.》

《그 동무야 조국을 위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영예군인이 아닙니까.》

《우리모두가 누리는 오늘의 행복도 조국을 지켜 포클러 싸운 로병동지들을 떠나서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 남이 겪는 불행과 재난을 강건너 불보듯하는 석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한사람을 위해 열사람, 백사람이 정성을 바치고 조직과 집단이 도와나서고 이끌어주는 이렇듯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이 땅 그 어

디서나 무수히 펼쳐나고있다.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한 한 해외동포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내놓았다.

《조국을 방문하면서 보고 들은 모든것, 조국의 발전모습과 온 나라가 화목한 친형제들 이룬 대가정, 집전한 풍모는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발견) 이였다. 현대문명과 고도성장을 자랑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는 지어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공화국특유의 면모라는것이 내가 받은 인상이였다.》

이것은 비단 그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누구나 공화국이야말로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 인간에 대한 정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라며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사랑이 넘치는 나라.

하다면 무엇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듯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도록 한것인가.

주마등처럼 스치는 모습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뜻밖 에 들이닥친 자연의 대재앙으로 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공화국의 함복도 북부피해지역. 그러던 그 땅이 것처럼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되어 세인을 놀래울수 있었던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

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그러면 재난이 나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것을.

그렇다.

예로부터 자식은 부모를 닮고 훌륭한 자식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고 보살피는 은 나라 인민을 고상시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사랑은 이 나라 인민이 발휘하는 사랑의 원천으로 되었고 공화국은 말 그대로 사랑이 차넘치는 나라로 세상사람들의 찬란을 받고있는것이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모두가 한식물, 친형제로 사는 공화국, 이 미덕의 화원에 넘치는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하여 이 땅은 언제나 밝고 아름다울것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탁아소를 많이 내오도록 하신 은정어린 조치

주제36(1947)년 9월 어느 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 은 품소 3.8탁아소(당시)를 찾아주시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아소 소장에 게 하루동안 하는 일과를 그대로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탁아소 소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아침에 어기어머니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받아서 진찰을 해보고 열이 있는 아이들은 격리실로 보내고 열이 없는 건강한 아이들을 받아 탁아실에서 탁아복으로 갈아입혀 자기 방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은 탁아실과 아이들의 방, 식사실도 돌아보시였다. 그리고 복욕탕에 들어서시어는 수도꼭지를 틀어보시고 물온도도 가능해보시며 복욕탕에 샤워를 놓아주어야겠다고 이르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아소를 깨끗하고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잘 꾸 렸다고, 탁아소를 꾸리느라고 정말 수고하였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탁아소를 많이 내와야 한다고, 탁아소를 많이 내오면 너성들이 사회에 광범히 진출할수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때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그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탁아소를 찾아 주신 사연을 알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우리 너성들이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 새 민주조선건설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쁘신 모든 사업을 뒤로 미루시고 탁아소를 찾아주시였던것이다.

그후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수많은 탁아소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온 나라 너성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였다.

본사기자

불행과 고통속에 시들어가는 너성들

— 피로 지역에서 —

너성친시, 너성학대 사회적공조로 되어버린 피로지역에서 수많은 너성들이 불행과 고통속에 시들어가고있다.

피로지역에서 자식을 가진 너성들이 직업을 구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마찬가지로 어렵다.

요행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고있다.

아무리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너성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해서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있으며 그에 대해 항의하면 당장 해고되고고만다.

또한 수많은 너성들이 해산을 계기로 직장에서 밀려나고있으며 다시 취직하는것은 이룰수 없는 꿈으로 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피로지역에서 치료비, 교육비 등 자식들을 키우는 데 너무나 엄청난 돈이 드는것으로 하여 너성들은 절망속에 허덕이고있다.

오죽하면 피로지역의 너성들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곧 직업을 잃는것이다.》, 《임신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지 않는것이 편하다.》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나돌고 너성교육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되어야 할 결혼과 해산이 불안과 공포, 절망의 대명사로 되고있었는가.

자식을 가졌다는 죄 아닌 죄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야 하고 살길이 막막하여 사람 하는 자식과 함께 사람 못살 세상을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것이 피로지역 너성들의 불행한 처지이다.

피로지역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신성하게 불리워야 할 《어머니》라는 부류이 살인마라는 소름끼치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대전에서는 한 녀인이 낳은지 20개월밖에 안되는 딸이 보낸다고 하여 얼굴을 때리고 발로 짓밟아 못해 벽에 던져 숨지게 하는 몸서리치는 범죄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범죄를 비롯하여 아이가 장난이 세차다오 하여 때려죽이고 잠을 자지 않고 운다오 하여 배를 밟아 죽이는 등 재가 낳은 자식을 무참히 살해하는 상상 못할 반인륜적범죄들이 피로지역에서는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극도의 인간중오사상과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피로사회가 초래한 범죄이다.

본사기자 흥범식



주 체 적 해 외 교 포 운 동 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빛나는 령도

지난 11월 1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신 3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뜻깊게 기념한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이 차넘치고있다.

예로부터 해외동포들은 민족이라는 대하에서 뛰어나온 물방울에 비유되고 그들의 력사는 려위없이 수난의 력사로 불리워왔다.

우리 민족의 불행에 찬 해외류방의 력사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불우한 행렬 가운데서 최악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름아닌 재일조선동포들이었다.

이런 그들에게 민족해방의 기쁨과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권 존엄과 영예를 안겨주시고 애국애족의 참다운 동포조직인 총련을 무어주시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해외교포운동은 비록 이국땅에서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나라 혁명에 참담계 이바지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탁월한 로선전환방향을 제시하시었다.

그리고 주제44(1955)년 5월에는 주체적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결성하도록 하심으로써 한때 차디찬 이국에서 날바다에 표류하는 쪽배마냥 이리저리 방황해야만 했던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계두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시었다.

총련을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대신하는 진정한 어머니 품으로 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고 동포들과 후대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의 손길은 총련조직과 동포들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주석구석에까지 뜨겁게 어여워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치신 로고와 심혈은 위대한 생애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축전이 총련지부일군대회에 보내주신 축전이었던 감동깊은 사실 하나만 놓고서도 잘 알 수 있다.

일찍이 총련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운명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탁월한 사상론적적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을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재일동포들이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오늘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은 천하제일위인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을 맞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과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운 주제100년대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진로와 목표를 환히 밝혀주시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해외혁명동지, 두리운 정을 안고 사는 혈육으로 불러주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각별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련 중시, 해외동포중시는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더없이 소중한 것으로 보아주시고 각별한 정을 기울여 《조국의 사랑은 마사로워라》의 노래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져지길 할것이라고 하시었다.

주체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하시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조국과 함께 영원히 한길을 가자는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안은 재일동포들이다.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에 안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총련을 그 어떤 천지공파속에서도 지켜나갈 애국조직으로 철석같이 다지였으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공화국을 견결히 옹호하였다.

또한 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의 철저한 대변자, 결결한 옹호자로서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특히 민족교육체제를 정연하게 세워놓고 애국위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수많은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한편 주체성과 민족성이 울려넘치는 동포사회를 꾸려놓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꽃피워왔다.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단결되고

광범한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았으며 애국애족의 계주봉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여기에 총련의 자랑스러운 참모습이 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해외교포들이 있고 저마다 자기 조직을 뜻고 활동하고있지만 총련과 같이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게 충실한 그런 참다운 해외교포조직은 없다.

우리는 천하제일위인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어버이조국과 숨결을 잇고 사는 총련의 아들딸들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의 목소리이다.

김순철

총련소식 총련본부위원장의 제25기 제3차회의 도표에서 진행

얼마전 총련본부위원장의 제25기 제3차회의가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허중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주호제1부 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부장, 송근학부의장 겸 교육국장, 서충언부부장 겸 국제통일국장, 강추련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 상임위원들, 총련본부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총련중앙 참사, 부국장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박주호제1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공화국창건 7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강국건설위업과 나라의 방위력, 핵전쟁억력강화에서 비약적전진이 이룩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데 대해 언급하였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정세와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핵전쟁소동이 위협계선을 넘어서고있는 속에서 조선혁명의 총화과 인민들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멸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모두가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총본가함으로써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고 열렬히 호소하셨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국인민들은 력사적인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마감짓기 위하여 국방과 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과 같이 떨쳐나서고있다고 밝혔다.

총련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에 총성으로 화답하며 조국인민들과 투쟁보조를 같이하여 일한 사업성과로 결속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이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총련본부위원장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분출시켜 자신이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함으로써 총련의 애국사업반을 상승계도에 확고히 올려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총련본부위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앞으로 도 지역지도단위를 책임진 총련본부위원장으로서는 불퇴전의 각오와 결심을 안고 강령적서한관철에 총력을 다하여 애국사업반을 상승계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뚜렷한 실적을 올림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총정의 보고를 드릴 결의를 다지였다.

허중만위원장이 회의의 결속을 하였다.

본시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진행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이역땅에 울리는 애국총정의 노래 - 2023년 총련 금강산가극단의 순회공연을 두고 -

총련 금강산가극단의 2023년 순회공연 《바람이 되어》가 일본 각지에서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맥박치고 민족적정서가 차넘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동포들의 애국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바람이 되어》! 여기에는 바람이 되어서라도 조국의 품에 안기고싶은 재일동포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동포들을 애국애족의 한길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바람이 되려는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다.

아무리 이역의 찬바람이 기승을 부리어도 꺾을수도, 식힐수도 없는것이 애국애족으로 불타는 총련예술인들과 재일동포들의 마음이다.

금강산가극단의 순회공연 《바람이 되어》는 총련의 얼굴을 가진 특색있는 공연이다. 기악연주 《바람이 되어》, 혼성창창 《번영하라 조국이여》, 독무 《평고춤》, 무용 《조가비춤》, 해금5중주

《준마치너》, 장세남독주 《그네뛰는 처녀》 등과 흥취나는 민요연곡들이 주체적민족예술의 우아함과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이는 동포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서 《아이들이아이는 우리 학교다》, 녀성중창 《봄바람》, 가야금과 저대독주 《미래를 향하여》의 풍목들은 그 어떤 역풍속에서도 사랑하는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족교육고수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있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크게 고무격려하고있다.

특히 무용 《강성부흥아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련일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조국의 모습을 잘 형상화한것으로 하여 매년 공연의 절정을 이루곤 한다.

하기에 공연을 본 관람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저마다 흥분된 심정을 터놓곤 한다.

《조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고 조선사람의 기상이 약동하는 공연을 보고 조선민족의 긍지와 감격으로 마음은 더욱더 젊어지고 깨끗해진다.》

《(바람이 되어)라는 순회공연의 제목 그대로 금강산가극단 배우들은 거치른 이역에서 한시도 조국을 잊지 못하고있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조국사랑, 민족사랑의 뜨거운 바람을 가져다 주었다.》

... 총련자들에게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는 동포들의 가슴마다에는 금강산가극단과 같이 특색있고

관목있는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고 그렇수록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애국총정의 한길만을 걸어온 금강산가극단의 어제와 오늘을 격정속에 돌이켜보곤 한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총련 금강산가극단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무어주시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예술단체이다.

이 예술단체가 세상사람 누구나 경탄해마지 않는 민족의 자랑 금강산의 이름으로 불려우게 된다는 이념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주제 63(1974)년 3월 중순 어느날 차레를 기다리는 수많은 공연장에서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조국방문계획을 제일먼저 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더 해줄것이 없겠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다시한번 심중히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예술단의 일정계획을 자신께서 좀더 연구해보겠다고 하시었다.

며칠후 그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국에서 그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라고,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에게 《금강산의 노래》를 안겨주라고 하시었다.

잠시후 어버이수령님께서 《금강산의 노래》는 해외에

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과 나라의 분별로 하여 고개뚝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큰 감명을 줄수 있다고, 나는 이 가극이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고생하는 60만 재일동포들에게 좋은 선물로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총련예술단 성원동무들에게 가극을 배워주라고 의상과 무대장치도 만들어보내라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금강산가극단을 무어주는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총련예술인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안겨진 크나큰 사랑의 선물인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와 금강산가극단은 이렇게 어버이수령님께 의하여 구상되고 마련된것이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에서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련의 예술인들을 위해 조국의 큰 강장도 통째로 내주도록 하시고 무리한 련습으로 가수들이 성대라도 상할세라 이비인후과의사까지 보내주시는 은정도 베풀어주시었다.

이렇게 태어난 금강산가극단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고 키워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일찍이 주체적해외교포운동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중대한 의의를 무를 잘 안다고, 조국을 위해 일을 잘하자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어 금강산가극단에 맞는 예술활동을 둘러시었다.

금강산가극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수령님의 고귀한 애국유산이라고 하시면서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이 깃들어있는 주체의 해외예술전당에서 일하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분도, 총련은 자기의것을 가지고 조국에 찾아와야 특색이 있다고 일깨워주시고 총련예술은 현대음악과 민족음악을 배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예술창조원칙을 밝혀주시는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금강산가극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참으로 각별하였다.

주제 81(1992)년 4월 어버이수령님 탄생 80돐경축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예술작품들이 다 사상예술성이 높고 형식도 총련의 특성을 잘 살렸다고, 1%의 결함도 없는 만점짜리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셨다. 그러시고도 무엇인가 부족하듯 그들을 위한 성대한 축하연회를 마련해주시고 친히 참석하시어 금강산가극단 단장에게 나는 동무로 잘 안다고, 조국을 위해 일을 잘하자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어 그리고 금강산가극단이 조국의 보천보경음악단이 일

선민족의 넋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의 애국적열의를 고조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주체적해외민족예술부대! 이것은 총련예술인들이 받아안은 최상최대의 믿음이고 사랑이었으니 세상에 나라도 많고 예술인들도 많지만 총련예술인들과 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있는 해외동포예술인들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그 사랑, 그 믿음에 총정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금강산가극단은 보람찬고 긍지높은 예술창조활동의 나날들을 즐기게 이어왔다.

동포군중의 지향과 요구, 정서와 기호를 반영한 예술작품창작으로 뜬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동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가림없이 찾아가 민족의 노래와 춤무대를 펼치곤 하였다.

이 나날에 수많은 예술인들이 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공훈배우, 2.16예술상수상자로 자라났고 금강산가극단은 동포들 누구나 사랑하고 기다리는 예술단체, 친근한 길동무, 친근한 교양자로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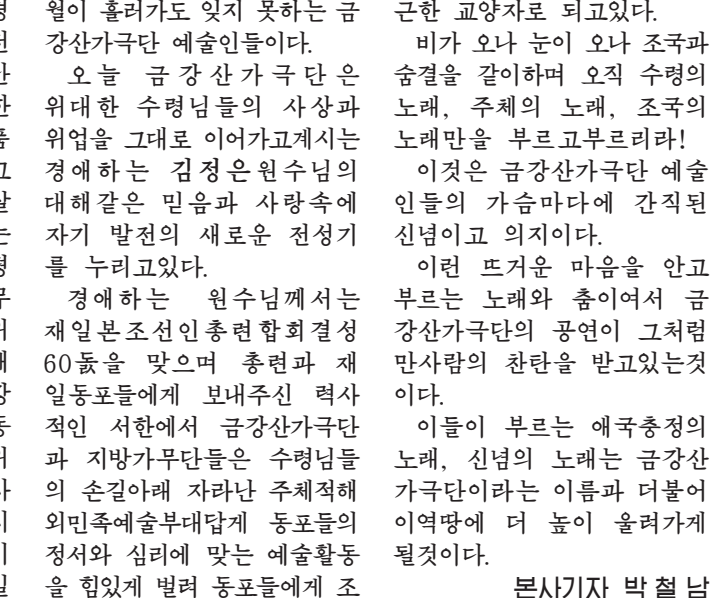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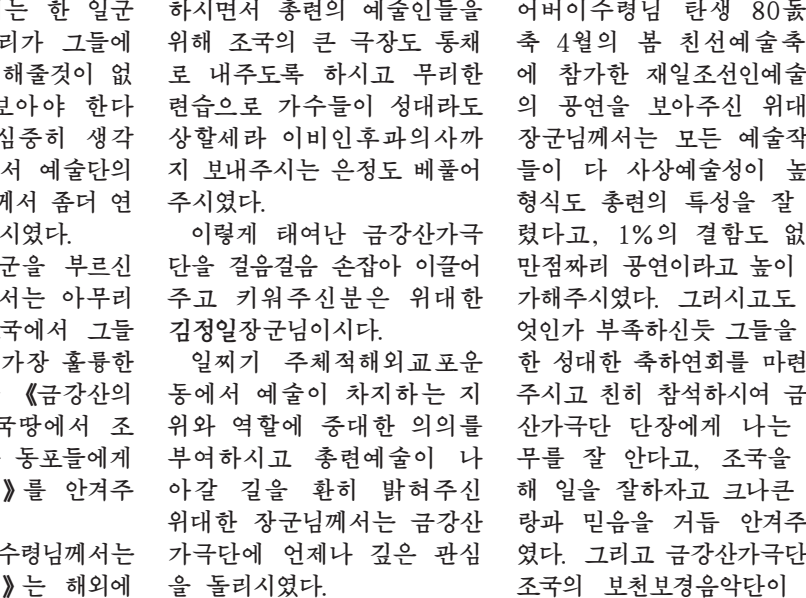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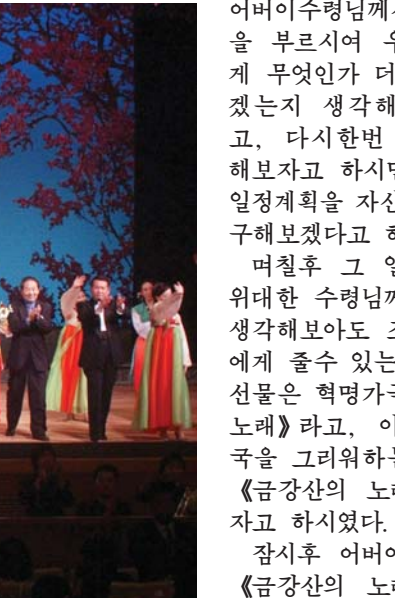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오직 수령의 노래, 주체의 노래, 조국의 노래만을 부르고부르리라!

이것은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신념이고 의지이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부르는 노래와 춤이어서 금강산가극단의 공연이 그처럼 만사람의 찬란을 받고있는것이다.

이들이 부르는 애국총정의 노래, 신념의 노래는 금강산가극단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이역땅에 더 높이 울려가게 될것이다.

본시기자 박철남



《민생파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초불로 탄핵하자!》

윤석열역도를 퇴진시키기 위한 피퇴지역의 각계층 투쟁이 날로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윤석열 역도퇴진을 위한 제63차 초불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었다. 로동자, 농민, 빈민, 대학생, 종교인 등 수만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는 《탄핵으로 싸우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초불이 이긴다!》, 《탄핵이 평화다!》 등의 대형포스터와 선전물들을 든

집회참가자들은 《기만적인 민생행보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매국노 윤석열탄핵》의 구호를 외치며 역도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었다.

집회에서 한 연설자는 사태에 환장한 윤석열역도의 반역적망동으로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윤석열탄핵을 통해 미일과의 모든 합의를 무효로 만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발언자는 이제 탄핵의 활시위는 당겨졌다.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

려야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강패에게는 초불이 약이다. 초불로 탄핵하자.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을 때려치우라!》고 외쳤다.

집회참가자들은 《핵오염 수두기공법 윤석열을 탄핵하라!》, 《도로조작 국정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강제징용관급부정 윤석열을 탄핵하라!》, 《평화파괴 전쟁선동 윤석열을 탄핵하라!》,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국대사관과 일본대

사관을 향해 시위를 단행하였다.

한편 광주에서도 윤석열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었다.

《광주전남초불행동》의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의 굴욕외교로 하여 민생이 파탄되고 조선반도에 전쟁위기가 조성되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참사만 벗어내는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모두가 초불을 들고 윤석열탄핵운동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11일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와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시민단체들과 로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층이 참가하는 《윤석열퇴진 디딤돌 농는 총력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전민중적인 총력기대만이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자기만이 아닌 각계층의 일치한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치욕과 굴종, 침략과 전쟁의 상징 - 미국괴뢰 《연합군사령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핵전쟁발발의 질은 전운을 몰아오는 침략과 전쟁의 상징인 미국괴뢰 《연합군사령부》가 조작성 태도로 4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970년대말 세계도처에서는 괴뢰지역에 존재하는 《유엔군사령부》를 시급히 해체하고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바빠맞은 미국은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어떻게 하나 괴뢰지역에 대한 군사적영구강점을 합법화하며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1978년 11월 7일 괴뢰들과 《연합군사령부》라는것을 조작해냈다.

당시 괴뢰통치배들이 미국과의 《연합군사령부》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배는 괴뢰지역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계속 내밀기과 상징의 반공화국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해보려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었다. 이렇듯 미국괴뢰 《연합군사령부》는 괴뢰지역에 대한 영구강점과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흉심과 상징을 등에 업고 추악한 잔명을 부지

하며 반공화국대결야망을 실현하려는 괴뢰통치배들의 매국배행위의 산물이다.

악명높은 미국괴뢰 《연합군사령부》의 조작성 태도로 미제침략군무리들은 괴뢰지역에 계속 들고앉아 주인행세를 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이 저지르게 되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윤금이 살해사건, 미군강점차에 의한 두 녀중학생학살사건들은 괴뢰지역에서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극악한 범죄행태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괴뢰 《연합군사령부》는 치욕과 굴종의 상징인 동시에 침략과 전쟁의 상징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괴뢰 《연합군사령부》는 북침전쟁공격을 노린 각종 전쟁계획들을 작성 및 수정보충하고 그것을 속달, 완성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들을 주관해왔다. 이 침략기구의 각본에 따라 미제의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장비들이 동원된 가운데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전쟁소동이 매일같이 같이 판관적으로 감행되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괴뢰역적배당은 미

국괴뢰 《연합군사령부》는 《동맹》의 상징이자 기반으로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왔다는니, 피로 맺어진 《혈맹》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것이라니 하고 떠들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친미사대매국에 환장이 된 친화역적의 추악한 본색을 여실히 보여주는 해괴한 나발이다.

역사와 현실은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대조선적대정책이 지속되고 윤석열역적배당을 비롯한 사대매국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한 언제라도 괴뢰지역 주민들이 불행과 고통,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없다는것을 증빙해주고있다.

하기에 오늘 괴뢰지역에서 각계층이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자!》, 《국헌정을 넘어선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켜라!》, 《윤석열을 퇴진하라!》고 웨치면서 반미, 반친,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리현심



가리키는 《배》

요즘 《통와대》것들이 《인물난》으로 속앓이를 한다고 한다. 결원되어있는 괴뢰행정부와 《사법부》, 《대통령실》의 빈자리들을 채워야했는데 좀처럼 말짱대는자들이 없었던것이다. 괴뢰인들은 악정과 폐물, 부패와 타락으로 망해가는 윤석열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주지의 사실이다.

《공정》과 《상식》은 역도의 《간판공약》이다. 그러나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윤석열역도가 한껏은 불공정과 비합리적인 행위뿐이었다. 《인사》문제만 놓고보자. 제가 한 말이 무색하게 권력의 요직들에 초보적인 인간적면모와 자격, 능력도 갖추지 못한 추물들을 대대적으로 박아넣어 《검찰공화국》, 독재체제를 구축하여온것이지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역도가 집

권후 장관후보로 지명한 인물들의 대부분이 지난 시기 저지른 패륜패덕행위, 부패범죄로 형식에 불과한 괴뢰국회의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사실은 역도가 떠드는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잘 말해준다. 얼마전에도 역도가 지명한 괴뢰대법원 원장과 《내성가족부》 장관후보자들의 직권남용, 재산은폐, 탈세범죄들이 드러나 여론의 시란을 받고 쫓겨나가나 사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장관방울》을 울려대도 침몰하는 《통와대》호에 누가 발을 들여놓겠다고 하겠는가. 주

에 보일리 만무한것이다. 결국 《통와대》와 괴뢰행정부는 온갖 부패와 비도덕적범죄의 소굴로 민생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되었고 지난 10월초에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보충선거에서 역적패당은 촛불을 삼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괴뢰주인들은 다음해에 진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역적패당을 심판하겠다고 욕욕하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장관방울》을 울려대도 침몰하는 《통와대》호에 누가 발을 들여놓겠다고 하겠는가. 주

민들의 분노와 배격에 질질한 윤석열역도가 《국민은 무조건 용서》, 《국민소통, 현장소통강화》, 《민생을 걸며 수속하고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떠들고있지만 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얼마전에도 역도는 자기와 연고관계가 있는자를 《헌법재판소》 소장후보로 지명하여 공정한 《인사정책》을 요구하는 민심을 또 다시 우롱하였다.

제버릇개 못준다고 했다. 괴뢰 각계층이 《윤석열때문에 온갖 비리가 성행하고있다.》, 《윤석열탄핵》의 목소리를 높이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최근 윤석열역도가 연일 《반성》을 읊조리고있다고 한다.

《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겠다.》 등 오히려.

각종 정책실패와 너편네를 비롯한 제 족속들의 부정부패의혹이나 무지무능과 독선, 전횡으로 인한 수많은 참사와 재해 등에 대해 아닌보살하고 죄악의 경제위기와 민생악화의 책임을 이젠 《정권》에 전가시키며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며 갑자기 돌변하여 《반성》을 한다?

승냥이가 양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격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반성》이니 뭐니 너스레를 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리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각계층이 진

개교리 황모되라

《반성》이니 뭐니 너스레를 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리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각계층이 진

청》한답시고 《소통》 흉내를 내면서 자기의 경제정책에 대해 떠벌리다가 《지금 탄핵시킨다고 아우성인데 하겠으면 하라.》고 비련형을 돌구며 반인민적악

하여 저들에 대한 민생의 규탄배격을 모면하고 끌어저는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유치한 오그랑수, 치졸한 기만극의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오물은 비탄보자기로 아무리 감싸도 악취가 나기 마련이다.

부연하건대 윤석열역도가 아무리 모지름을 써도 극악한 파쇼광, 만고역적, 정치미숙아, 부정부패의 원흉, 지적지능아로서의 자기의 더러운 정체를 숨길수 없고 저지른 죄악을 덮어버릴수 없으며 민생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수 없다.

김정혁

재앙덩어리의 《안전》 다령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괴뢰지역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떠들었다고 한다.

괴뢰지역을 최악의 민생치욕, 전대미문의 인권패회지대, 살벌한 《검찰공화국》,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로 만든자가 누구인데 《안전지역》라 칭인가 하는것이다.

정말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수 없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후 괴뢰지역은 그야말로 불행과 고통, 죽음의 지역으로 더욱더욱 화하였다.

《로동시간유연화》, 《난방비폭탄》과 같은 역도의 친제벌, 반서민정책으로 이대로 못살겠다는 각계층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역도의 무지무능과 악정이 초래한 각종 참사와 재난으로 《아침에 일어나는것이 두렵다.》는 민생의 한탄이 그칠새 없는 곳이 바로 괴뢰지역이다.

뿐만아니라 역도가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부분별한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하여 각계층이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서 살

고있고 섬나라것들의 핵오염수방류책동에 적극 동조해나서고있는 역도의 일사대공중망동으로 바다까지 《죽음의 바다》로 변질되어 다음날인 괴뢰지역이다.

하기에 괴뢰지역의 각계층은 지금 《순제앙, 너 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성토회하며 반윤석열투쟁을 세차게 벌리고 있다.

엔제인가 괴뢰지역의 어느한 인사가 《도약하기로는 연산군을 흉내내고 독재하기로는 전두환을 흉내내고 사악하기로는 리명박을, 무능하기로는 박근혜를 흉내내고 이 모두를 하나로 합쳐놓은 윤석열, 빨리 퇴진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주장한것은 윤석열역도에 대한 민생의 저주와 원한을 그대로 대변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도가 기 민생과 여론앞에 머리를 쳐들고 나서서 괴뢰지역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떠들어대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민생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며 변변스러운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독사를 집안에 두면 화를 피할수 없는것처럼 윤석열역도와 같은 괴뢰단지를 그대로 두면 무서운 재난을 면할수 없다.

괴뢰지역의 각계층이 윤석열퇴진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평광혁

미래가 죽어가는 사회

청춘시절은 꿈과 희망의 시절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괴뢰지역의 청년들에게 있어 청춘시절은 희망과 꿈을 활짝 꽃피우는 시절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하부하루로 되고있다.

청년실업문제가 높고보아도 그렇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후 지난 1년사이 청취취업자수는 10만 3 000명이나 줄어들었으며 대학졸업생 실업자수는 30만여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기업들의 청년고용률은 다른 세대들보다 현저히 낮다고 한다.

겨우 얻었다는 일자리도 대체로 임금이 가장 낮은 비정규직인것으로 하여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후에도 빚을 내어 생계를 이어가고있다 한다.

《(바늘구멍)만한 청년취업의 문 더 좁아진다》, 《청년실업은 늘고 전세값은 뛰고》... 언론들에 실리는 이 기사

목들을 보아도 괴뢰지역에서 청년이 된다는것은 곧 실업자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청년실업문제를 그대로 출생률저하와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대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속에서 극심한 경제적어려움으로 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홀로 사는것이 사회적으로 되고있고 괴뢰지역의 평균출생률은 0.75명정도로 되었다.

이에 대해 괴뢰지역의 한 사회학교수는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최대한 낳지 않으려 하고있고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고있는데다가 주택문제, 일자리문제, 교육과 교육환경문제까지 겹치면서 출생률 저하문제는 그 해결을 곤란하지 않는 형편이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가중되는 생활난으로 하여 사회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른바 《은둔형외톨리》라 불리우는 청

년들의 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19~34살 청년 100명당 5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살아있는 현실에 대해 괴뢰지역의 어느한 언론은 《미래세대가 힘차게 일어나고 소의감에 휩싸여있는지를 나타내는 한 단면이다.》라고 전하였다.

일자리도 없고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어 비판과 절망, 허탈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이 고뇌와 번민에 모태기다가 삶을 포기하고 자살의 길을 선택하고있다.

최근 괴뢰 전 지역의 80개 병원에 입원한 2만 6 500여명의 자살시도자들을 분석한 결과 10명중 4명이 20대, 30대청년층들이었다 조사되었다고 한다.

괴뢰지역에 펼쳐진 비참한 현실은 윤석열역적배당의 청년들에 대한 외면과 홀시, 배척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청년, 미래가 죽어가는 사회는 망한 사회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현재 괴뢰지역에서는 인구구조로 65살이상의 주민은 수백만명에 달하고 로인들의 반수이상이 빈곤함을 호소하며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다니고있다.

지난 시기 각종 선거들에서 보수후보들을 70% 이상의 지지율로 밀어주어 《보수지지층》으로 불리우는 로년층은 지난해의 《대통령》선거때도 윤석열역도를 적극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로년층에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지지를 20%이상 낮아졌다.

제 대접 재가 받는다고 윤석열역도 스스로가 조제한 결과인것이다.

현제 괴뢰지역에서는 인구구조로 65살이상의 주민은 수백만명에 달하고 로인들의 반수이상이 빈곤함을 호소하며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다니고있다.

지난 시기 각종 선거들에서 보수후보들을 70% 이상의 지지율로 밀어주어 《보수지지층》으로 불리우는 로년층은 지난해의 《대통령》선거때도 윤석열역도를 적극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로년층에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지지를 20%이상 낮아졌다.

제 대접 재가 받는다고 윤석열역도 스스로가 조제한 결과인것이다.

현제 괴뢰지역에서는 인구구조로 65살이상의 주민은 수백만명에 달하고 로인들의 반수이상이 빈곤함을 호소하며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다니고있다.

지난 시기 각종 선거들에서 보수후보들을 70% 이상의 지지율로 밀어주어 《보수지지층》으로 불리우는 로년층은 지난해의 《대통령》선거때도 윤석열역도를 적극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로년층에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지지를 20%이상 낮아졌다.

제 대접 재가 받는다고 윤석열역도 스스로가 조제한 결과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철

척은 사회의 산물 - 학교 폭력

본사기자 박진홍

척은 사회의 산물이다. 이 말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산물을 낳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척은 사회의 산물이다. 이 말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산물을 낳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척은 사회의 산물이다. 이 말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산물을 낳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척은 사회의 산물이다. 이 말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산물을 낳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척은 사회의 산물이다. 이 말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산물을 낳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척은 사회의 산물이다. 이 말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산물을 낳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척은 사회의 산물이다. 이 말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산물을 낳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본사기자 박진홍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전화의 나날 후방인민의 모습

해방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품속에서 꿈만 같은 생활을 누리는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나라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판타지 싸움이었고 전체 인민과 군대가 한 덩어리가 되어 조국의 존경을 사수한 피의적 전이었다.

다음 홀에 들어서니 불기둥이 치솟고 포탄이 우박치는 속에서도 싸우는 인민군인들을 도와 전선원호에 펼쳐나선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이 눈앞에 안겨졌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엄혹한 겨울에 전선원호물자를 소산들에 실거나 등에 지고 고지에도 치달아오르는 인민들을 형상한 작품에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 작품앞에서 김희희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은 정종여화가가 1950년대말에 그린 조선회화(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입니다. 화가는 주인공들과 소, 말들을 검은 선으로 둘러싸고 붉은 선으로 대상을 가늘고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 주어 전선원호에 펼쳐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실감있게 보여주었습니다.》

투쟁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었다.

작품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과 물결 등을 선으로 힘있게 강조하고 버단과 버알의 질감, 강물 등을 더운색과 찬색으로 뚜렷한 대조속에 형성하고있었다.

전체 인민과 군대가 하나로 굳게 뭉쳐 싸우는 불굴의 투쟁모습은 조선회화 《락동강할아버지》에서도 감명 깊게 표현되었다.

소나기가 퍼붓는 락동강에서 인민군정찰병들을 도와 배로 길안내를 하고있는 사공할아버지.

화가는 할아버지의 끈두

선 눈썹과 이끌거리는 날카로운 눈, 노를 거머쥔 손과 역센 힘이 용솨솨치는 두팔의 근육, 역수로 쏘아지는 소나비와 배모서리에 맞고 휘거나는 물줄기, 갈대숲 등을 예리한 선과 색채를 배합하여 실감있게 형상함으로써 긴박한 극적분위기를 예술적으로 잘 나타내었다.

작품들은 전체 인민과 군대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죽음도 두려움이 싸우는 이 불멸의 힘을 그 누구도 당할수 없다는 철리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었다.

본사기자 리철민



《남강마을의 녀성들》



《락동강할아버지》

맛 좋고 영양가 높고 강냉이가공품을 생산

*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 *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 여러가지 맛 좋은 강냉이가공품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있고 생산설비들을 정연하게 갖추어놓은 공장에서는 질 좋은 강냉이가공품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인민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가, 어떤 맛과 향기를 가진 식품들을 좋아하는가

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제품개발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 이 공장인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닌 기품이고 일본새이다.

공장에서는 첨단분석설비들을 가지고 강냉이원료의 수분축적률과 당분함량, 회분함량 등 성분분석을 정확히 하여 제품의 실수률을 높이고 당분함량과 불기함량, 산도 등 강냉이가공품들의 질적지표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특히 옥쌀성형관각체계를 확립하여 옥쌀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밥을 지은 후 쌀알의 형태가 변하는것을 막고 소화흡수율을 보다 높였으며 구수한 맛과 고유한 향기를 잘 배합시킬수 있게 강냉이단품생산공정을 새롭게 일선시켰다.

공장에서 생산된 강냉이칼국수와 강냉이강정, 강냉이차를 비롯하여 20여종에 50여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 강냉이미분가루로 생산한 강냉이떡볶이와 구수한 강냉이과자, 독특한 맛을 내는 강냉이단무, 건강에 좋은 옥쌀기름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이 아주 좋다고 한다.

본사기자



조선 온돌 (3)

글리빈, 그림채대성

대동강문화는 널강문화, 량강문화, 인다스강문화, 황하문화와 함께 세계5대문화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대동강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유역에서 발생한 고대문화이다.

대동강유역은 맑은 강줄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지대로 이루어졌으며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이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다는것은 단군조선시기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무덤과 돌판무덤이 이 강유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대동강유역에서는 도시를 방불케 하는 큰 부락터유적들도 많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고대문명의 중심지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이밖에도 단군조선초기의 유적들에서 위력한 청동무기인 비파형단검과 비파형칼끝이나 사슬은 대동강유역이 세계적으로 제일먼저 청동기생산에 들어선 청동기문화의 발원지, 중심지의 하나이며 고대문명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유역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시기에 벼, 조, 콩, 기장, 수수 등 오곡농사와 다른 나라의것과는 다른 석잡주에 치기를 하였다것을 보여주는 물질적자료들도 나왔는데 이것을 통하여 당시 농업이 발전하였음을 알수 있다.

대동강유역에서 뚜껑들에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무덤들이 수백이나 발굴, 고증되었는데 이것은 고대천문학의 발원지라고 하는 서남아시아의 량강유역보다 훨씬 앞선것으로 된다.

대동강유역의 무덤들에서 나온 청동2인교에장식품과 청동방울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음악과 무용, 교예가 상당한 수준에서 발전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고대글자인 신지글자가 사용된 사실은 조선고대문화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팔다리가 뻗뻗하고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 정신마저 얼어버릴가봐 겁이 났다. 네네를란드 고향의 빠치까(벽난로)가 못건디게 그리웠다.

아, 온기는 어디에 있는가. 몸이 후끈히 녹으면 배가 고파도, 어디가 아파도 일없을것만 같았다.

하였기에 목포에서 하루밤 목은 사이 비로소 몸속일 기회가 생겨서 이 세상에 자기처럼 행복할 사람은 다시 없을것같이 생각되었다. 하루 밤을 지낸 집은 무슨 초화가가 붙여진 방바닥이 뜨뜻하였다. 바닥전부가 구석까지 덥지 않았다.

편안히 누워 잔등을 지지니 온몸이 언제 얼었더니실게 화끈 달아오르고 기분은 하늘을 날던 양 느껴졌다. 저절로 경탄이 터져나왔다.

《아, 이런 살림방도 다 있는가. 세상에!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친근하디 보배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행복한가!》

후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이렇듯 따뜻한 바닥을 구들(온돌)이라고 한다.

납작하고 넓은 판들을 방바닥에 꼭 깔고 그밑에 여러

갈래의 굵을 내는데 부엌에서 밥을 지을적에 때는 나무불의 불길과 연기가 굵을 타고나가서는 밖에 세운 굴뚝으로 빠진다고 한다.

따지고보면 구들이란 밀친 동그스리가 없고 큰 재간 아니고도 어디서든 얼마든지 차려놓을수 있는것으로서 생활에 친근하여 쓰이는 보배인것이였다.

곰은 거니 나 들이지 않으면서도 큰 덕을 본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유럽땅은 넓고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있지만 조선에서처럼 간단한 방법으로도 방울을 만들줄은 아무도 모른다.

박연은 구들을 쓰고사는 조선사람들이 부러웠다.

제주도에서 박연을 조종으로 올려보냈을 때 외국관계를 맡아보는 레조에서는 시끄럽게 되었다.

그를 귀국시킬 기회가 언제 생길지 전혀 예상조차 할수 없애 막연한노릇이었고 제멋대로 살라고 그냥 내버려두어도 되었다.

집을 한채 내주자니 산설과 물결은 이국땅에서 흘러 비가 어떻게 살림을 한다 말인가.

또한 신원을 전혀 모르는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첫 인민예술가 김옥성

김옥성은 1910년대중엽에 태어나 초도의 해녀였던 어머니의 구슬픈 노래를 들으며 자랐다.

나라없던 그 세월 고향상에 계서 산 기타와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그는 망국의 설움속에 눈물로 오선지를 적시었다.

음악작품들을 내놓았다.

무명고지전투에서 적의 화구를 막고 돌격로를 연 전우의 시신을 붙안고 복수를 맹세하는 인민군장병들의 분노에 찬 모습에서 충격을 받은 그는 고지에서 터져오르는 승리의 만세소리를 들으며 노래 《결전의 길로》의 후렴부터 작곡의 첫시작을 때였으며 그 후 이 전사가 요를 훌륭히 완성시켰다.

가요 《전호속의 나의 노래》도 그가 인민군병사들과 함께한호에서 싸우면서 착상하고 완성한 명곡이다. 인민군병사들이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달려드는 적들을 용감히 물리치고 포연이 날리는 고지에서 철참에 하는 인민들을 전쟁승리로 고무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노래를 창작하여 온 나라를 들끓게 했다. 력사의 땅, 들끓는 청산벌은 그대로 있었고 노래였다.

명곡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는 청산리의 사람들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한없는 감사의 노래였으며 북한은 작곡가의 격정을 담은 시대의 메아리였다.

김옥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청원지지도소식을 듣고 과일향기 넘치는 문화농촌의 레일, 인민의 행복이 넘칠날 레일을 그려보며 가요 《황금나무 늘금나무 산에 심었소》를 창작하였다.

김옥성은 1960년대초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일념으로 불타는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요 《만경대의 노래》를 세상에 내놓았다.

첫 인민예술가인 그는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세계1류급의 작곡가들을 소개하는 국제유료에서 소제명있는 음악가였으며 명망높은 작곡가였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는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한 김옥성의 생일 100돐에 기념음악회를 마련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불같은 열정을 지닌 재능있는 작곡가였던 김옥성은 오늘날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사모로 원자재마련과 준비를 도와주고있다.》고 하였다.

이 계기를 통하여 사람들은 가정과 마을들에서 우수한 민족문화를 꽃피우면서 서로

서로 원자재마련과 준비를 도와주고있다.》고 하였다.

이 계기를 통하여 사람들은 가정과 마을들에서 우수한 민족문화를 꽃피우면서 서로

세계 비를 질문 화유산 김치담그기 풍습

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하기에 유네스코는 《조선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경험을 호상 배우고 배워줄뿐 아니라

공화국에서는 튜경김치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김치공장들이

핀곳에 일떠서 여러가지 맛 좋은 김치들을 사계절 열거없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한마디로 조선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굴도 익히고 책도 보았다.

하여 조선력사와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문제에도 시야가 넓어졌다.

그는 건자께나 자기의 목소를 견져주고 편히 살도록 극진히 돌보아주는 조선사람들의 은공에 보답할 일념으로 량심껏 일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정이 뜨겁고 레질이 밝은 조선사람들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었다.

그는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풍속을 익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주위사람들이 그를 따랐이 돌보아주었다. 눈치빠르고 기억력이 좋은 그는 한 1년 지나나는 사이 애흔히 쓰는 조선말을 거의 나 배웠고 장과 김치담그기, 국수누르기, 약과, 강정튀기기 등의 풍속들은 물론 손님을 대접하는 법, 절을 하는데 하고 받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의 각종 레법을 터득하였다.

나날이 몸에 젖어들고 땀수 없이 친근해진 생활들이 전부 마음에 드는 가운데서도 구들생활이 가장 좋았다.

훈련된 당직군사들의 살림방은 구들로 꾸려졌는데 마음에 불도 잘 들고 골고루 더웠다.

밖에서 일을 하느라 하루종일 땀을 흘려도 그는 조금도 두려움 없었다. 저녁에 방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삼시에 온몸이 훈훈하게 녹

의 은공에 보답할 때다. 창칼로 보답하자!)

그는 외국놈들을 무찌르는 전투물마타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던 가운데 봉산철곡싸움에서 치명상을 입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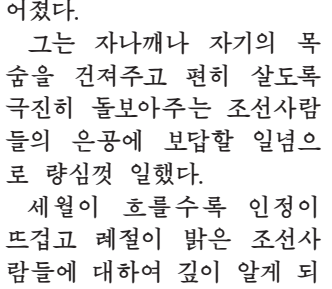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온 박연은 마치 소중찬 보물인듯 방바닥을 살뜰히 어루만지며 《눈속에서 다 죽게 됐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행운은 정말 아버지 덕이고 둘째는 이 구들덕입니다. 구들이 몸을 덥혀 주니 온몸에 화기가 들고 피가 잘 통하면서 상처의 독을 막아낼수 있었지요. 추위에 몸이 얼어 굳어지고 피가 잘 돌지 못했더라면 나는 벌써 숨이 끊어지고말았을것입니다. 구들-이런 보배의 덕을 한평생 잊고사는 조선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럽습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유로인이 대답하였다.

《난 당파러지말에 쓰러진 자네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 조선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그때부터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싶어 궁금값이네. 이게 다 알았으니 속이 시원해. 자네 좋은 사람이야. 우리 나라에 온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의리에 밝으니 말이지. 저를 구원해준 은공에 보답하고자 창칼을 들고 목숨을 내면 의리보다 더 값없는 의리가 어디 있겠나.》

유로인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이때다. 내가 조선사람들이



본사기자

본사기자

가때문이였다.

어름철에도 비를 많이 맞으면서 땀이 뻘뻘 땀났다. 이런 때도 구들을 그을 위해 어루만지는듯 온기를 준다.

그에게 있어서 오늘날 구들을 떠난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할수 없었다.

그가 조선에서 살기 시작한이래 8년만에 외적이 두번 제로 조선에 기여들었다.

박연은 결심하였다.



본사기자

가때문이였다.

어름철에도 비를 많이 맞으면서 땀이 뻘뻘 땀났다. 이런 때도 구들을 그을 위해 어루만지는듯 온기를 준다.

그에게 있어서 오늘날 구들을 떠난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할수 없었다.

그가 조선에서 살기 시작한이래 8년만에 외적이 두번 제로 조선에 기여들었다.

박연은 결심하였다.

가때문이였다.

어름철에도 비를 많이 맞으면서 땀이 뻘뻘 땀났다. 이런 때도 구들을 그을 위해 어루만지는듯 온기를 준다.

그에게 있어서 오늘날 구들을 떠난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할수 없었다.

그가 조선에서 살기 시작한이래 8년만에 외적이 두번 제로 조선에 기여들었다.

박연은 결심하였다.

가때문이였다.

어름철에도 비를 많이 맞으면서 땀이 뻘뻘 땀났다. 이런 때도 구들을 그을 위해 어루만지는듯 온기를 준다.

그에게 있어서 오늘날 구들을 떠난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할수 없었다.

그가 조선에서 살기 시작한이래 8년만에 외적이 두번 제로 조선에 기여들었다.

박연은 결심하였다.